
2020년 제9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2. 21. ~ 2. 2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 프로그램 | 최일구의 정말 | | |
|------|--------------|-----|-------|
| 방송일자 | 2020. 2. 21. | 시청률 | 0.003 |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20회 방송은 국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통계청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공급하는 단순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정책을 백업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점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한 생업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끊임없는 사회의 변화를 짚어내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국가통계, 신뢰받는 통계시스템 구축,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통계, 국가발전과 통계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차분하고 쉽게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의 역할과 빅데이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통계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빅데이터 시대 국가통계의 중요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 능력인 통계가 국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시청자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유익성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사회 현상을 숫자에 담아 세상을 들여다보고, 숫자와 더불어 살며 숫자와의 전쟁을 치르는 통계청의 명암, 민간과 기업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통계 활용도, 통계 오독 사례, 국가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국가 통계 등의 이해도를 높였다.

통계청의 인터넷 사이트 ‘통계닥터’에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통닥초이’를 통해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유용했다. 또, ‘같은 통계, 다른 해석’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취업률을 예로 들어 오해에서 비롯된 오독이라고 설명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기존의 GDP를 넘어서 새로운 지표로 ‘삶의 질’을 제시하고 71가지 지표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해가겠다는 설명에서 통계청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정확하고 세밀한 국가 통계가 왜 중요한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자료 확보 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빅데이터가 국가 위상을 형성하는 데 지침돌이 됨을 잘 알려주어 통계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끊임없는 사회의 변화를 짚어내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국가통계, 신뢰받는 통계시스템 구축,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통계, 국가발전과 통계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차분하고 쉽게 설명했다.

| 프로그램 | 우리동네 개선문 | | |
|------|--------------|-----|-------|
| 방송일자 | 2020. 2. 22. | 시청률 | 0.048 |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제21회는 대전광역시의 '장애 유형별 AI민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서울시 송파구의 '마을 동아리와 통장단이 민·관 가교역할로 생활밀착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다루었다.

AI민원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한 대전광역시는 사회적 약자 SOS앱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마을 동아리와 통장단이 생활밀착 민원을 해결하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사례는 주민자치와 위민행정을 스스로 실천한 수범사례이다.

또, 대전광역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관광정보 수화영상 안내 '누리봇' 운영은 세계최초 사례인데다 행정안전부가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미래, 키오스크 원리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AI시스템을 설명해 시청자 이해도와 흡인력을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동네 개선문>은 지자체 행정의 민원 문제 해결 과정이 주민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아이디어 논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아래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론 선진화된 발전을 쌓아가는 지역 미담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공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모습을 통해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오던 이미지를 벗어나고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적극적 의사결정 과정이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자치행정의 꽃을 피우며 변화하고 있다.

■ 대전시, 장애유형별 AI민원 서비스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개발 취지와 함께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향후 계획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민원서비스에도 인공지능 AI와 사회적 약자 SOS앱이 도입돼 활용되는 부분이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를 접목시킨 일선 민원행정의 변화가 관심도를 이끌었다.

특히, AI민원 시스템 개발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물론 최첨단의 민원 행정시스템으로 세계에서조차 주목받고 앞서가는 우리나라 공공 행정서비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흐뭇한 소식이었다.

■ 통장단과 생활밀착 민원 해결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중인 동통장단으로 구성된 현장 개척단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그 만족도를 입증했다. 송파구 오금동의 통장단이 지역현장으로 직접 출동하여 생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행정기관이 민원을 경청하고 접수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통장단의 건의와 제안이 민주적으로 활발하게 토론되고 의견이 수렴이 되는 과정이 본받을만한 사례였다.

| 프로그램 | 국민기획 과학특 | | |
|------|--------------|-----|-------|
| 방송일자 | 2020. 2. 23. | 시청률 | 0.000 |

【총 평】

<국민기획 과학특> 제92회 방송은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이 주는 국내외적인 의미와 우주기술 개발의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지난 2월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 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이 주는 의미와 과정, 원리를 시청자 눈높이에서 풀어줌으로써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해양·환경 위성의 위상을 잘 그려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2월 19일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와 관련하여 국내의 인공위성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울러 소개해 주었다. 우리나라 1호 인공위성이었던 우리별 1호부터 무궁화, 천리안 등 다양한 위성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더불어 국내 우주개발산업의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었다.

2010년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통신, 해양, 기상 3가지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천리안 1호(통신해양기상위성)가 발사된바 있으며 이어 2018년 천리안 2A호로 명명된 우주 및 기상 관측용 위성이 발사된바 있다. 천리안 2B호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2018년 12월 발사된 천리안2A와 위성 본체는 같고 임무를 위한 센서(탑재체)만 다른 쌍둥이 위성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와 대기를 24시간 관측하며 해양 환경 변화와 대기 오염 물 농도 등을 10년간 집중 관측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2011년부터 개발됐다. 이번 천리안 2B호는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 오염물질의 생성, 이동, 소멸 및 한반도 주변 해양생태를 관측할 수 있는 환경해양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 앞선 위성들과 연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수준은 인공위성 탑재체, 설계, 제작은 충분한 자립화 가능한 수준이며 중대형급 플랫폼 개발 기술 또한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유인우주선 프로젝트로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우주비전 2050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설명하면서 언급되는 본체와 탑재체와 관련한 기본적 개념 설명이 미흡했고 인공위성과 한 국가의 우주개발을 얘기하면 꼭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로켓 발사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중요한 요소가 빠진 느낌이었다.

【참고사항】

01:38 주제 및 핵심 내용 소개 → 관련 내용 VCR → 출연자 소개 없이 질문으로 이어졌는데 최소한의 출연자 소개를 하고 질문을 하는 흐름이 매끄럽다고 생각한다.

05:33 진행자의 “천리안 2B호의 개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윤용식 소장은 “2011년 7월부터 동시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자막은 ‘2001년 7월’로 오타기 했다.

| 프로그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 |
|------|--------------|-----|-------|
| 방송일자 | 2020. 2. 24. | 시청률 | 0.000 |

【총 평】

코로나19가 '심각상태'로 격상돼 국가 재난상황에 이르렀다. 방송 당일 확진자 763명, 사망자 7명에 이르며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103회는 지난 2월 3일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된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 '일본 크루즈 별도집계, 특혜 vs 적법?'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부른 일본 영해 내에 있는 크루즈선박 관련 이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여 관심과 흡인력을 높였다. 또한 크루즈가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가를 점검하고 크루즈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취소 수수료 문제까지 언급한 부분은 유익한 정보제공이었다.

최대환 기자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포인트, 오늘의 팩트 등을 요약해 주며 이해도와 전달력을 높였고, 크루즈 내 코로나 확진자를 일본이 왜 '기타'로 분류했는지 등을 답변으로 이끌어내는 순발력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정책신뢰감을 높이고 정책알림이 역할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 크루즈 별도집계, 특혜 vs 적법?'은 지난 2월 3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크루즈 탑승 다수 승객에게 집단 감염으로 확대된 사건을 다루었다.

코로나19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직전 <코로나19, 오해와 진실?>에 이어 국민관심사를 잇따라 다룬 점이 적절했다. 집단감염을 부른 일본 영해 내에 있는 크루즈선박 관련 이슈에 대해 팩트체크로 관심과 흡인력을 높였다. 또한 크루즈가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가를 점검하고 크루즈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취소 수수료 문제까지 언급한 부분은 관련 정보 제공으로 유익한 내용이었다.

■ 팩트체크 포인트 - 크루즈 안이 특별히 전염병에 취약하다?

영국 국적의 선박이어도 승객들이 영국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선을 긋고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승객들과 선원들이 가깝고 밀접하게 뒤섞이며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 팩트체크 포인트 - 일본 크루즈 환자 분리 국제법상 정당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 검역법은 감염자가 아닌 경우 하선하는 규정도 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영국 선박이기 때문에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WHO는 크루즈 선박 내의 감염자들을 기타로 분류해 일본 내 감염자로 포함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있다.

| 프로그램 | 국민리포트 | | |
|------|--------------|-----|-------|
| 방송일자 | 2020. 2. 25. | 시청률 | 0.000 |

【총 평】

<국민리포트>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하여 주민 및 시장 상인들의 극복노력과 더불어 카드 영수증 선택발급제의 홍보 필요성, 안전한 횡단 보도 만들기,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권투체육관, 교복 물려주기와 관련한 뉴스를 방송했다. 특히, 여러 뉴스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와 전통시장에서 펼쳐지는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소개한 것은 국민리포트다운 차별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었던 취재물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작은 힘 보태요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주민이 하루에 한 번씩 공동시설물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다른 주민들의 동참도 이끌어내고 있다. 수원 못골시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인들이 나서 마스크 배포 및 시장 구석구석 방역도 실시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카드 영수증 선택발급제 시행...잘 모른다

종이영수증 발급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지난 11일부터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인 '카드 영수증 선택발급제'가 시행되었다.

■ 안심하고 건너요 안전 횡단보도 함께 만들어요

짧은 보행신호로 인해 노약자 등이 횡단 시 위험요소가 발생한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도 많다. 경찰청이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에 나섰다. 보행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신고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 영화 <반칙왕> 촬영장...조치원 권투체육관의 앞날은?

조치원의 허름한 권투체육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건물이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조치원 권투체육관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훈훈한 자원봉사

개학을 앞두고 교복 마련에 학부모의 부담이 큰 와중에 목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위해 사전준비가 한창이다. 6년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교복의 명찰 떼기, 단추확인, 다림질 등 정리작업에는 해당 지역 부모들도 자원봉사를 나왔다.

【참고사항】

국민적 위기상황에서 대부분의 방송 기자들이나 인터뷰 대상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국민 기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리포팅을 진행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 | | | |
|------|--------------|-----|-------|
| 프로그램 |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 | |
| 방송일자 | 2020. 2. 27. | 시청률 | 0.005 |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는 '철도 안전관리, 부실하면 대형사고!'라는 부제로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하는 철도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철도 안전관리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고도화된 기술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수칙 준수 역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주었다.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아이템 자체가 개연성 있는 주제로 시청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좋다.

【구성 및 내용】

'철도 안전관리, 부실하면 대형사고!'라는 부제로 지하철 안전사고 대비 시설관리와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철도 건널목 사고, 철도 선로 내 사고, 공항철도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토부에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철도사고가 366건이 발생하며 사망자의 경우 189명이 나왔다. 철도사고는 충돌, 탈선, 화재뿐만 아니라 건널목 사고와 철도교통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런 철도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지하철 사고와 안전관리

매년 100여건의 철도사고가 발생하며 지하철에서도 문 끼임, 발 빠짐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하루 평균 인구가 1,150만 명으로 그중 지하철은 많은 승객을 수용하며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스크린 도어 이상 및 센서 고장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소개하고 승하차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역내에서는 열차 속도를 5km이하로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평소 역내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지 못해 아쉬웠다.

■ 철도 건널목 사고

국토부의 2017년 철도사고 현황에 따르면 16~17년 철도 건널목 사고는 20건으로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한다. 철도 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가 원칙이며 건널목 차단 장치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공항철도는 하루 이용 승객이 25만 명으로 최근 전동차 내부 방역작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열차와 버스가 추돌한 사고와 주취자 사고를 차례로 소개하면서 대형사고로 연결됨을 강조하고 승객 안전수칙을 당부했다.